

2019년 12월 2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므누신 발언 이후 상승 확대 므누신 “1 월 초 중국과 무역합의 서명을 확신한다”

### 미 증시 변화 요인: 차별화된 종목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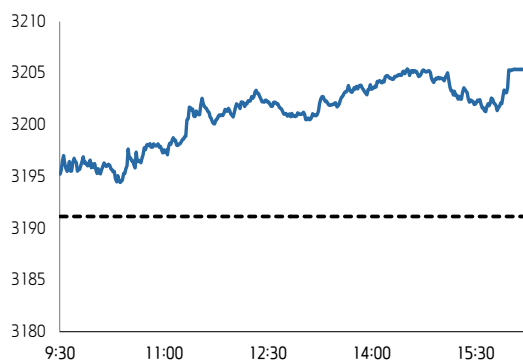
미 증시는 트럼프 탄핵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화재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출발. 더불어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 월 초 중국과 1 차 무역협상을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상승폭 확대. 더불어 미 하원이 NAFTA 를 대체하는 USMCA 협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점도 긍정적.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로 차익 매물도 출회되며 상승폭은 제한(다우 +0.49%, 나스닥 +0.67%, S&P500 +0.45%, 러셀 2000 +0.32%)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12 개월 Fwd PER 은 17.8 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10 년 평균(14.9 배)은 물론 5 년평균(16.6 배)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발표. 이는 S&P500 의 3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2%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1 차 무역협상 체결 등을 기반으로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은 4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하지 않고, 개별 기업들의 호/악재에 반응을 보이는 종목 장세에 국한된 모습을 보임.

이런 와중 최근 글로벌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금은 기술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 1 월 초 중국과 무역합의 서명을 확신한다” 라고 주장. 특히 일부에서 중국이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 수입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협정문을 1 월 초 공개하고 서명할 것이라고 주장한 므누신의 발언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NAFTA 를 대체하는 새로운 북미 무역거래(USMCA)를 하원이 승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

결국 미 증시는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불거졌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미-중, 미-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상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개별 화재성 재료가 유입된 기업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차별화된 종목장세가 펼쳐짐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종류(%) | Close     | D-1   | 지수종류(%) | Close     | D-1   |
|---------|-----------|-------|---------|-----------|-------|
| KOSPI   | 2,196.56  | +0.08 | 홍콩恒生    | 27,800.49 | -0.30 |
| KOSDAQ  | 647.85    | -0.17 | 영국      | 7,573.82  | +0.44 |
| DOW     | 28,343.50 | +0.37 | 독일      | 13,211.96 | -0.08 |
| NASDAQ  | 8,879.26  | +0.58 | 프랑스     | 5,972.28  | +0.21 |
| S&P 500 | 3,202.17  | +0.35 | 스페인     | 9,617.20  | -0.05 |
| 상하이종합   | 3,017.07  | +0.00 | 그리스     | 902.78    | -0.32 |
| 일본      | 23,864.85 | -0.29 | 이탈리아    | 23,708.94 | +0.34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1% 상승

마이크론(+2.81%)은 데이터 센터 등 수요 증가를 기반으로 양호한 실적 발표하자 상승했다. 그러나 가이던스가 기대했던 만큼의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 일부 차익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이 소식은 AMD(+1.25%), 웨스턴디지털(+2.69%), 인텔(+1.38%) 등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상승을 이끌었으나, 브로드컴(-1.02%), TI(+0.04%) 등은 하락하는 등 업종 전반에 걸친 상승을 이끌지는 못했다. 일부 차익욕구가 높아진 점이 부담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 NVIDIA (+2.59%)는 멜라노스 인수가 EU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으로 상승했다.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1.23%)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2020년 가이던스 하한을 상향 조정했으나 차익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페이스북(+1.76%)은 시러스 로직(+3.32%)을 인수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상승했다. 페이스북이 하드웨어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신호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약국 체인점인 라이트 에이드(+41.95%)은 비용관리와 예방 접종의 성장 등으로 예상을 두배나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가이던스 하단을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알트리아(-1.17%)는 미 의회가 전자 담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자 하락했다.

#### 주요 ETF

| ETF 종류             | 동락률    | ETF 종류               | 동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1.25% | 대형 가치주 ETF(IVE)      | +0.25% |
| 에너지섹터 ETF(OIH)     | +0.98% | 중형 가치주 ETF(IWS)      | +0.34% |
| 소매업체 ETF(XRT)      | +0.48% | 소형 가치주 ETF(IWN)      | +0.23% |
| 금융섹터 ETF(XLF)      | -0.03% | 대형 성장주 ETF(VUG)      | +0.67% |
| 기술섹터 ETF(XLK)      | +0.72% | 중형 성장주 ETF(IWP)      | +0.47%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1.07% | 소형 성장주 ETF(IWO)      | +0.45% |
| 인터넷업체 ETF(FDN)     | +0.97% | 배당주 ETF(DVY)         | 0.00%  |
| 리츠업체 ETF(XLRE)     | +0.95%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0.07%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43%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0.19% |
| 바이오섹터 ETF(IBB)     | +0.49% | 미국 국채 ETF(IEF)       | +0.08% |
| 헬스케어 ETF(XLV)      | +0.36% | 하이일드 ETF(JNK)        | 0.00%  |
| 곡물 ETF(DBA)        | -0.81% | 물가연동채 ETF(TIP)       | +0.16% |
| 반도체 ETF(SMH)       | +0.58% | Long/short ETF(BTAL) | -0.18%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448.55   | -0.06% | +0.71% | +3.68% |
| 소재      | 380.36   | +0.33% | -0.08% | +2.30% |
| 산업재     | 684.03   | +0.29% | -0.59% | -0.01% |
| 경기소비재   | 976.28   | +0.36% | +1.38% | +3.53% |
| 필수소비재   | 644.75   | +0.64% | +0.88% | +1.98% |
| 헬스케어    | 1,181.27 | +0.39% | +1.40% | +4.64% |
| 금융      | 509.88   | +0.03% | -0.03% | +3.58% |
| IT      | 1,588.02 | +0.71% | +2.00% | +4.07% |
| 커뮤니케이션  | 182.10   | +0.79% | +1.82% | +3.32% |
| 유틸리티    | 325.71   | -0.06% | +2.77% | +1.92% |
| 부동산     | 236.33   | +1.07% | +2.17% | -1.45%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세 이어갈 듯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1%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4%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464 계약 순매수 한 가운데 0.95pt 상승한 292.5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2.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으나,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1 월 초 중국과 무역협정 서명을 단행하고 그 협정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상승폭을 확대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미-중 1 차 무역협상 타결된 12 월 들어 한국 증시가 5%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협상 체결 이후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화가 부족해 불안감이 상존하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중국과 미국 관계자들의 1 월 초 협정문 사인 발언은 이러한 불안감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한편 현재 불안 요인으로 ①미-중 무역협상 구체화 ②브렉시트 유예기간 ③트럼프 탄핵 ④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있으나, 브렉시트 유예기간 관련 이슈는 영국-EU 간 무역협상이 진행될 내년 상반기에나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탄핵을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은 하원이 USMCA 협정 체결을 통해 일부 완화 되었다. 그런 와중에 미-중 무역협상 서명 관련 불안감도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상승은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존해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불안 요인들의 완화에 기대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 주택 지표 부진

11 월 미국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544 만건)과 예상(545 만건)을 하회한 535 만건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1.7%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로는 2.7% 증가했다. 중간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5.4% 상승한 27 만 1,300 달러를 기록해 93 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11 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변화하지 않았다. 지난달 발표(mom -0.2%)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예상(mom +0.1%) 보다는 부진했다.

12 월 필라델피아연은지수는 전월(10.4)이나 예상(8.5) 보다 부진한 0.3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신규주문(8.4→9.4), 재고지수(-4.6→6.1)은 개선됐으나, 고용지수(21.5→17.8)는 부진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5.2 만건) 보다 감소한 23.4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22.1 만건) 보다는 증가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이는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 월 1 일부터 OPEC+ 산유국들의 공급량 추가 감축이 시작된다는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다만, 거래량이 연말을 앞두고 급감해 일부 수급에 의한 결과로 해석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지는 내년 초 시장을 지켜 봐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졌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세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탄핵 이슈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유예기간을 두고 불확실성이 이어졌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한편, BOE 는 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브렉시트 이슈에 신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도 약세 요인이었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 여파로 하락 출발했다. 한편, 트럼프 탄핵 이슈 등이 있었으나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중국과 서명을 1 월 초에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결국 혼조 마감 했다.

금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으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무역협상 서명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9% 하락했으나, 철근은 0.43% 상승했다.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61.18    | +0.54  | +3.59  | Dollar Index  | 97.391  | -0.01  | -0.01  |
| 브렌트유  | 66.54    | +0.56  | +3.64  | EUR/USD       | 1.1122  | +0.07  | -0.07  |
| 금     | 1,484.40 | +0.39  | +0.82  | USD/JPY       | 109.31  | -0.22  | 0.00   |
| 은     | 17.154   | +0.62  | +1.21  | GBP/USD       | 1.3009  | -0.53  | -1.15  |
| 알루미늄  | 1,797.00 | +1.13  | +1.24  | USD/CHF       | 0.9782  | -0.22  | -0.69  |
| 전기동   | 6,215.00 | +0.66  | +0.96  | AUD/USD       | 0.6886  | +0.48  | -0.33  |
| 아연    | 2,325.00 | +1.04  | +2.74  | USD/CAD       | 1.3123  | +0.06  | -0.47  |
| 옥수수   | 386.50   | -0.13  | +2.32  | USD/BRL       | 4.065   | -0.07  | -0.62  |
| 밀     | 545.25   | -0.55  | +2.83  | USD/CNH       | 6.9995  | -0.04  | +0.77  |
| 대두    | 936.25   | -0.45  | +2.60  | USD/KRW       | 1165.60 | -0.27  | -1.79  |
| 커피    | 127.20   | -4.50  | -7.32  | USD/KRW NDF1M | 1162.10 | -0.28  | -0.75  |

| 10 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 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 미국       | 1.912  | -0.52   | +1.95   | 스페인      | 0.444 | +1.80   | -0.30   |
| 한국       | 1.655  | +4.50   | +4.00   | 포르투갈     | 0.404 | +1.90   | +0.60   |
| 일본       | 0.003  | +1.50   | +1.50   | 그리스      | 1.370 | +9.80   | +2.80   |
| 독일       | -0.235 | +1.40   | +3.40   | 이탈리아     | 1.381 | +4.50   | +15.00  |